

도시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4>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재개발·재건축만이 대안인가
단순한 개조·개선 의미 넘어
동네 살리고 주민 소득 높이기



지난달 13일 동네 사랑방이 된 부산 반송 2동 느티나무도서관에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찾아 책을 빌리고 있다.

방젯골 추진위 김영미 사무국장

애정있는 주민 늘어나는 것
그게 바로 행복마을만들기



“마을 운동의 모태가 된 희망세상은 이 지역을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느티나무라는 조직이 생겨났고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나고 같이 미래를 생각하는 장이 됐습니다.”

김영미(40) 느티나무 사무국장은 ‘지역 토박이’로, 주변 권유로 우연히 희망세상과 만났다. 이후 ‘여기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어느덧 동네의 핵심 인물이 됐다. 느티나무도서관 1층에 마련된 사랑방 카페에서 지역 대학생기자들과 인터뷰를 막 끝낸 그녀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곳곳에서 반송2동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벌써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도실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형성한 반송2동이 처음엔 노후주택,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들 역시 패배의식에 젖어있었다. 주민수도 4만2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급감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동네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아줌마들 이름 불러주는 것, 좋은 아버지 모임을 만드는 것 등 조금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왔고요. 주민모금운동을 하는데 월급을 가져다준 세무사, 은행대출을 받아 모금한 아주머니 등 주민들이 너무도 선뜻 나서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을 만들기사업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줘야 해요. 끌고 가려고 해서 안 됩니다. 동네에 대한 애정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에요.”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市는 행정·재정 보조만... 주민 스스로 행복마을 만들어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전경. 부산 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체되면서 그 대안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투자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노후 단독주택지역, 즉 개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과 유사하다. 먼저 주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전문가와 사업 자문위원회가 측면지원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 보조에 나서는 것이다.

부산이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과 건설업체에 일임했던 재개발·재건축 대상 구역에 이 방식을 도입하고 나선 것은 주거지의 슬럼화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아예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이 원주민 이주, 전통적인 공동체 파괴, 고층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안’이 요구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부산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시공업체를 구하지 못하면서 정체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해운대 등 일부 상업적 수요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향후 개발여지도 거의 없다. 부산은 지역 내 구릉지나 언덕 등 고지대까지 피난민들과 도시로 향하는 농촌 이주자들의 영세노후주택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에서 광주보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수익을 좇아 주민 간, 업체 간, 또는 주민·업체·행정

기관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불가피한 재개발마저도 지형적인 조건 탓에 예상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의 대책은 다소 낮은 감이 있다.

“일단 이들 지역은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비율이 높습니다.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산시청 박정훈(42) 주무관은 이 사업이 단순히 주거공간에 대한 개조 또는 개선의 의미를 넘어 주민역량 강화와 커뮤니티 비즈니스(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등 소득 향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기간 성과에 차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7년간 54개 마을에 402억1700만원을 배정하고 3년 내에 주민들이 독자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복안이다. 이에 산도 물리적인 시설사업과 주민들의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의 예산배정이 8대2로 정해져 있다. 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더 교육, 생태아카데미, 초보농학교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마을공동체의 마을기업화 유도, 노후 상점 정비, 아케이드 설치 등 시장·상권 재생 대책 등이 있지만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1년차에 주민공동체가 기반이 되는 ‘행복마을 센터’ 등 물리적 시설 및 공동체를 만들고 2~3년차에는 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마을중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첫 해 1년은 시설

부문에, 나머지 2년은 운영부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2010년 4곳, 올해 11곳 등 15곳에 각각 35억9800만원, 63억8900만원 등을 투입했다. 부산시는 당장 성과를 보이기 어렵지만 사업 대상지 가운데 모범적인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지마다 역사·문화자산, 지역적 특성, 주민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범모델을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이미 부산시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실시 이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살리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97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에서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네 도서관 만들고, 동네 신문을 제작하며, 동네 이곳저곳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2007년 느티나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성격의 ‘희망세상’과 동네 공동체 성격의 ‘느티나무’로 분리됐으며 현재 각각 250명과 4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주민 생활 챙기기, 독거노인 요구르트 나눠주기 등 작은 것에서 시작해 ‘잘 살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주부와 청소년들의 사랑방인 느티나무도서관도 주민모금운동부터 추진한 뒤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철저한 주민주도형이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주간 즐거운한자는 광주일보를 구독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 신청 하십시오!

무료로 한자학습·역사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즐거운한자 구독신청문의 : 해당지국 또는 ☎062)220-0511

한민족 최고의 영웅 판타지! 고구려 대무신왕!



광주일보 **즐거은漢字**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연재됩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대무신왕”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대한 고구려를 이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전설 삼족오 고구려 <대무신왕>은 천손의 뜻을 이어받은 고구려 제3대 제왕입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최대의 영웅, 대무신왕을 통해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간 고구려의 위대한 기상을 느껴보세요!